분노, 맞서지 말고 불교로 '해독' 하자

미국 언론들, '분노의 시대' 대안으로 불교 '주목'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올 1월 취임 연설에서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하며, 통상 · 외교 ·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한 것. 이에 대해 수많은 미국 각계 인사들은 "다문화 · 다인종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 "'배척'은 종국에 분노와 보복을 낳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1명의 총기난사로 5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악의 총기 난사 테러로 인해 미국 사회 내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1명의 분노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 극한 공포를 느끼며, 테러를 가할 위험이 있는 대상을 '더 배척해야한다' 또는 '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 미국 언론은 자주 미국의 지금 시기를 '분노의 시대(angry times)'라고 칭한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때 아닌 불교 붐이 다시 일고 있는 미국에서는 분노에 분노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닌, '불교로 해독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 '가디언'은 10월 13일 불교가 우리의 분노를 해독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불교에 주목했다. 세상을 전자기기 스크린 너머로 접하는 우리는 내적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떨어졌고, 이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독법으로 불교를 제시하며 "불교는 상대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이 현재 미국은 '분노의 시대'라며 정세를 다스리기 위해 불교의 도리를 공부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뉴스그램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사회서
내면 觀에 도움되는 불교 해법
'가디언' 공(空)사상과 명상 제시
뉴스그램 "3독 · 5계 유념하라"

특히 불교의 '공(空)' 사상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사실 우리는 모두 텅 빈 존재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나도 텅 비었고, 상대도 텅 비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우리는 자신의 '내적 자아'를 투영해 상대를 본다. 상대가 미워지거나 나쁜 감정이 생길 때 해결책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불교가 어렵다면 명상부터 배워보라"고 권했다.

다른 미국 언론도 불교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뉴스그램'은 같은 날 부처님을 언급하며, 불교의 도리에 따른다면 모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그램'은 우선 3독(三毒)을 설명했다. 탐욕(貪欲) 진에(瞋恚) 우치(愚癡)를 일컫는 말이다. 탐욕은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한다. 진에는 노여움이며 우치는 어리석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 번뇌가 중생을 현혹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뉴스그램'은 "이 3독을 알고, 3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말씀으로 5계를 언급했다.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가 5계에 해당한다. 이는 각각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아내 이외의 여성, 남편 이외의 남성과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그램'은 "3독을 멀리하고 5계를 따른다면 위협이 많은 정세에서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 박진형 기자

태국 불교계, '검은 돈' 내막 드러났다

前 방콕불교연맹 대표 횡령 혐의 '덜미'
한화 약 810억원 가량 현금 · 현물 적발

태국 국가 불교연맹의 검은 돈 내막이 드러나 한차례 폭풍우가 예상된다.

방콕 국가 불교연맹이 부패사건에 연루됐다고 '방콕포스트'가 10월 14일 보도했다. 노파라트 벤야와타나눈(Nopparart Benjawatananun) 불교연맹의 전(前) 대표가 국가 지원금이던 사찰재산을 횡령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불거졌다. 현재 불교연맹의 재산은 압류될 위기이며 노파라트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노파라트는 약 7100만 바트(한화 약 24억 원)의 국가 불교연맹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돈을 횡령한 공모자도 현재 8명 밝혀진 상태다.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사원 기금을 먼저 받은 뒤 노파라트나 그의 측근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 23억 바트(한화 약 785억원) 가치의 현물 25점도 압수돼 경찰이 현재 그 출처를 찾는 중이다.

꾸준히 있어온 횡령 비리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폭로로 드러나게 됐다.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수많은 불법 자금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자산이나 현물 뿐 아니라 주식 등을 통해서도 불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방콕불교연맹의 횡령혐의가 불거졌다. 방콕 현지 경찰들은 현재 23억 바트(한화 약 285억 원) 가치의 현물 25점을 압수했으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현지는 이런 사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분위기다. 무릇 불교단체라면 부처님의 뜻을 포교하고 세상을 부처님의 손길로 보듬는데 힘써야 하는데 세속적 문제로 도마에 올라 유감이라는 의견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자 작가 조지 손더스, 맨부커상 수상

〈링컨 인 더 바르도〉로 올해의 수상자 거머쥐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부커상의 올해 수상자로 불자 작가인 조지 손더스(58)가 선정됐다고 '라이언스로어' 등 외신이 10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첫 번째 수상자는 미국 인종문제를 풍자한 작품 〈셀아웃〉을 쓴 폴 비티였다.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조지 손더스의 첫 소설 〈링컨 인 더 바르도(Lincoln in the Bardo)〉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롤라 영 맨부커상 심사위원장은 "작품이 매우 획기적이고도 독보적이었다. 재치 있으면서도 지적이다. 작품 속 '거의' 죽은 영혼들에게 역설적으로 생동감을 부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링컨 인 더 바르도〉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11살 아들 윌리의 죽음을 영혼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책이다. '바르도'는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과 환생 사이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손더스는 링컨 대통령이 1862년 워싱턴의 한 묘 앞에서 아들 윌리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손더스는 '라이언스로어'에 "불교 경전을 읽었을 때 '바르도'에 대해 알게 됐다. 그것은 일반적인 영혼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뒤엎을 만큼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영국 맨부커상의 올해 수상자로 불자 작가인 조지 손더스(58)가 선정됐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조지 손더스는 수상 소식을 들은 후 "매우 큰 영광이다. 남은 인생과 그 안에 써갈 작품들이 이 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일컬어진다. 지난해에는 한국 작가 한강이 저서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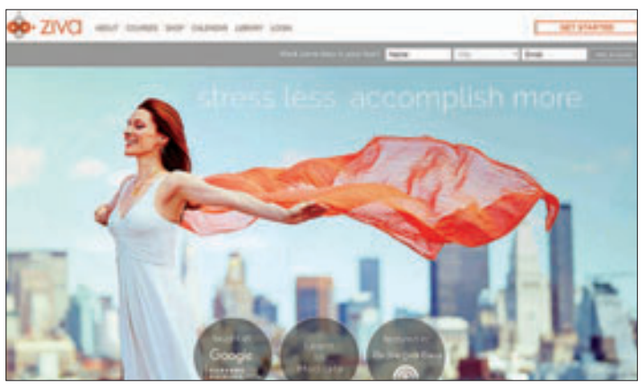
브로드웨이 스타, '명상지도자'로 탈바꿈

美 출신 여배우 에밀리플랫츠, 뉴요커 대상 명상 지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댄서이자 가수로 활약한 한 여배우가 명상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에밀리 플랫처는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10년간 춤 · 노래 등의 공연으로 활약한 배우다. 그는 뉴욕 소호에 '지바 마인드(Ziva Mind)'라는 명상센터를 차리고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4대 엔터테인먼트 상인 TV의 에미상(Emmy), 음악의 그래미(Grammy), 영화의 오스카(Oscar), 연극의 토니상(Tony)을 수상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한다.

그가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는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랫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코러스 라인(A Chorus Line)' 공연 기간 동안 공연자들이 아플 경우 무대에 오르는 대역을 맡았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댄서이자 가수로 활약한 한 여배우가 명상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에밀리플랫처가 운영하는 '지바 마인드' 명상센터 공식홈페이지.
출처=zivameditation.com

그는 "대역 준비를 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이 나를 명상으로 이끌었다. 브로드웨이에서 내게 주어진 배역도 없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26세임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났으며 점점 상황은 악화됐다. 그러나 명상을 접한 이후로 나는 브로드웨이에서 꿈을 펼치며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루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처가 방황하던 당시 동료 배우가 명상을 권유했지만, 그는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음 명상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 히피들의 전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주의자였던 플랫처는 명상을 시도했고, 그의 삶이 즉시 개선되고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플랫처는 "명상 후 곧바로 좋아짐을 느낀 나는 '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나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나 인도로 향했다"며 "3년간 명상을 지도하는 과정을 이수한 뒤 명상센터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플랫처는 온라인 강의와 개별강의를 열어 명상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들에게 명상의 장점을 소개한다. 그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명상에 회의적인 이들은 일단 명상을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